



해피에이징 낙상 예방 안전손잡이

욕실 벽 실리콘 안전손잡이 ... 노인 사고 막는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25%가 낙상사고를 경험하고 연간 12만 명이 뇌 손상·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다. 이 중 25%가 1년 안에 세상을 떠난다. 낙상사고는 노인 사고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사회적 기업 해피에이징은 노인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용품이 많지 않다는 데 주목했다. 8일 서울 목동 양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난 권경혁 해피에이징 대표는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 및 간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

마찰력 높은 실리콘 소재 적용
야광스티커로 밤에도 잘 보여

모친 잃은 경험서 사회적기업 창업
지자체 노인복지 정책과 함께 성장

용이 연간 1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낙상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실리콘으로 안전손잡이 업그레이드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53.7%). 그 안에서도 화장실(60%)이다. 대부분 화장실을 습식으로 사용해서 물기가 남아 있는 데다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들이 용변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다 넘어지면 요추 골절, 고관절 골절, 뇌손상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권경혁 해피에이징 대표는 안전손잡이를 화장실 변기 옆에 설치해 앉고 일어날 때 잡을 수 있게 했다. 몸체 표면은 실리콘으로 제작했다. 물 묻은 손으로 잡아



해피에이징	
설립	2016년 5월
위치	서울 양천구
제품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실버카 등
특징	노인 낙상사고 방지 패키지

권경혁 해피에이징 대표가 노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기존 알루미늄 재질에 비해 차잡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몸체 끝에는 야광스티커를 부착해 야간에 잘 찾을 수 있게 했다. 화장실 바닥과 샤워부스 아래 해피에이징 미끄럼방지 매트와 함께 깔면 화장실 낙상사고 확률을 더 낮출 수 있다.

권 대표는 어머니를 잃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창업을 결심했다. 그는 "2014년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골반골절을 입고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이때만인지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화장실에 손잡이가 있었더라면 낙상사

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다니던 회사를 나와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다"고 말했다. 2015년 소셜벤처경진대회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5월 해피에이징을 설립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뒤 3년 만인 지난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 노인복지 예산 활용 그는 노인 낙상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

업을 확장했다. 노인복지 예산을 활용해 각 구정 노인복지과에 등록된 독거노인의 집에 안전손잡이 두 개와 미끄럼방지 매트 한 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벌였다. 2018년 서울 광진·성동구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2018년부터 2년간 제주 서귀포시 표선·성산·남원읍 등 700가구에 이를 설치했다. 권 대표는 "사용자들은 이제 안전손잡이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목포, 부산을 비롯해 서울 양천·강동구로도 사업을 확대했다.

안전손잡이는 개당 가격이 5만2900원(설치비 포함)이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받으면 자기부담금 15%만 내면 된다. 약 3만원에 4개를 설치할 수 있다. 안전손잡이 매출은 2018년 1억원에서 지난해 2억 8000만원으로 성장했고, 올해엔 매출 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해피에이징은 노인을 위한 '안전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점·소등 리모컨, 미끄럼방지 양말, 보행차, 가스자동차 단기, 응급알림서비스, 모서리 보호대 등 노인 주거 안전용품 여덟 가지를 집안에 모두 갖추는 프로젝트다. 권 대표는 "현재 국내 노인용품 시장 규모는 약 500억원대로 추산되는데 패키지 상품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ios@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thebest@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웰리스 제균공기청정기 (국내 스타트업) 코로나19로 유럽 수출 급증

유럽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스타트업 웰리스가 개발한 '공기 제균 청정기'의 유럽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해 공기 중에 떠 있는 각종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효과 때문에 병원과 공공기관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8일 웰리스에 따르면 유럽 총판인 스페인의 에어테크닉스는 지난 1월 초도물량 1200대를 가져간 뒤 지난달 말 2400대를 추가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공급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웰리스는 유럽 수출 목표를 당초 5000대에서 두 배인 1만 대까지 상향 조정했다.

웰리스의 공기 제균 청정기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OH라디칼'을 자연정화 방식으로 생성하는 제품이다. OH라디칼은 공기 중 오존이 과산화수소 또는 천연 오렌지 추출물과 결합할 때 나오는 성분으로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공기 중에 떠 있거나 사물 표면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 등을 제거한다.

웰리스는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 바이러스연구소로부터 자사 제품이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로타바이러스를 2시간 만에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시험 결과를 받았다.

효과가 입증되자 유럽 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아랍에



웰리스 제균공기청정기의 유럽 총판인 에어테크닉스에 설치된 제품을 이 회사 요르디 울트라 대표(왼쪽)와 바르셀로나대 연구원이 살펴보고 있다. 웰리스 제공

미리트(UAE),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출 물량과 단가, 공급시기 등을 협의 중인데, 회사 측은 상반기 이들 국가에 5000대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 들어 2월까지 유통 총판에 통해 5000대가 팔렸다. 현재 추가 발주된 물량은 7000대다. 지난해 전체 내수 판매량(6400대)과 비교하면 큰 증가폭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렌탈업체, 금융회사 등이 구매량을 늘리면서 올해 연간 내수 판매 목표도 5만 대로 올려잡았다.

유익석 웰리스 대표는 "주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국내의 총 판매 목표는 7만 대"라며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 원부자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ios@hankyung.com

벤처기업協 “코로나19 맞설 기술력 갖춘 벤처 모여라”

벤처기업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기술력을 갖춘 국내 벤처기업 모집에 나섰다.

벤처협회는 8일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을 추천받아 검증한 뒤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독려하는 한편 잘 알려지지 않은 벤처기업 및 스타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최근 스테라피, 글로텍, 볼트크리에이션 등 3개사를 우선 소개했다. 스테라피는 '바이러스 파이터'라는 브랜드로 코로나바이러스 전용 방역서비스를



내 놓은 업체다. 다중 이용 시설, 사무실 등에 공간소독 및 항균 소독을 제공한다. 이승재 스테라피 대표는 "항균소독은 공간 표면에 바이러스 또는 세균 등이 착상되지 않도록 하는 시공"이라며 "마찰에 의한 손상이 없으면 최대 1개월까지 항균력이 보존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글로텍은 화상회의 솔루션 '아이씨유씨(seeUsee·사진)'를 회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 원격회의와 같은 비대면 업무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재정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 서비스는 화상 공유와 PC 바탕화면 공유, 스마트폰을 통한 현장 영상 공유(드론 포함), 원격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마이크로 건식 식각(에칭) 기술을 보유한 볼트크리에이션은 12μm(1μm=100만분의 1m) 두께 폴리에스테르(pet) 소재에 미세가공기술을 적용해 가볍고 숨쉬기 편한 필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moon@hankyung.com

휴테크, K9 구매자 대상 안마의자

휴테크산업이 기아자동차 K9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안마의자 구독서비스 'K9-카이 안마의자 36개월 스트리밍'을 8일 출시했다. K9 자동차 구매자는 300만원 상당의 고급 안마의자(카이 S7)를 36개월 구독하거나 150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할인 혜택과 1.0% 또는 1.9%저금리 할부 혜택은 공통으로 적용된다.

K9 차량 출고 후 기아차 전시장에서 프리미엄 릴랙스 프로그램을 통해 안마의자 구독을 신청하면, 36개월간 안마의자 이용료는 기아차가 전액 부담한다. 휴테크는 무상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한다. 사용 종료 후 9만9000원을 납입하면 안마의자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무릎·허리에 열 전달해 통증·염증 줄인다

보스킨헬스케어 '닥터 쿨' 출시

의료기기업체 보스킨헬스케어가 통증 치료기 '닥터 쿨(사진)'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통증 발생 부위에 원격외선 열을 발생시키는 마시지 유틸을 밀착하면 피부 깊숙한 데 있는 조직까지 38~41도의 열이 전해져 염증을 개선하고 통증을 없애준다. 근육 통증은 물론 염증 치료까지 가능한 마시지 기기다. 지금까지는 염증이 사라지게 하는 데 필요한 열이 피부나 근육 속 염증까지 도달하지 않아 염증 수치를 줄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허리, 어깨, 무릎, 복부 등 다양한 통증 부위에 유틸을 붙이면 진공 음압으



로 지방세포 및 조직에 지속적인 피부 당김과 이완 작용을 반복해 셀룰라이트 개선과 피부 탄력 증가,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이 회사는 닥터 쿨과 관련해 네 건의 특허를 획득하고, 피츠버그 국제발명대회 금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을 받았다.

장태순 보스킨헬스케어 대표는 "주로 국내 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영업해 왔다"며 "앞으로 일반 가정용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성공하는 리더들의 선택!

CHIEF EXECUTIVE

CHIEF EXECUTIVE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20년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경제/경영 분야 대표 매거진

#깊이있는_지식 #최신정보 #즐거움



우수콘텐츠잡지 2020

1월 호 : 위기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2월 호 : 수축사회, 과연 위기인가?

3월 호 : 코로나 19, 리스크 리스트럭처링

문의 - CHIEF EXECUTIVE 홈페이지 (http://www.chiefexe.com) 02-3786-0188